

30대 남녀 고용률 격차 해소, 국제적 수준의 여성 고용률로의 변화 가능

30-34세 여성고용률,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쳐

◆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제16회 여성주간을 맞아 'OECD 통계로 살펴보는 한국 여성의 취업과 일·가정 양립' 발표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(센터장 전기택 박사)는 OECD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취업과 일·가정 양립 현황을 분석·발표함.
-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비교·분석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 여성 삶의 현주소를 짚어보고, 향후 일·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

I. OECD 통계로 살펴 본 한국 여성의 취업과 일·가정 양립

1) 이 글은 제16회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발표한 자료('OECD 통계로 살펴보는 한국 여성의 취업과 일·가정 양립')의 통계를 갱신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수정·보완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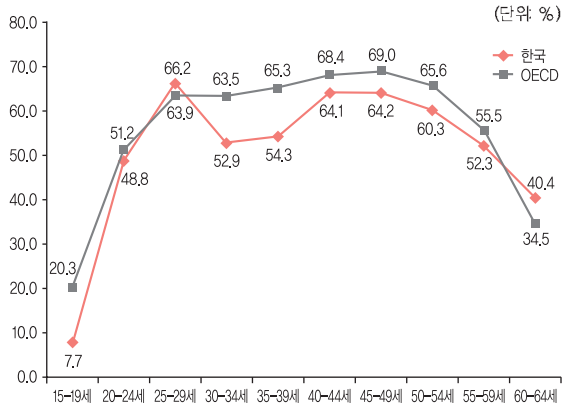
* 작성자: 전기택 연구위원, 박건표 연구원

이슈 #1

한국 여성 고용률, 30-34세에서 급격하게 감소

☞ 2010년 현재 한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, OECD 평균보다 10.6%p 낮아

-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15-19세부터 25-29세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.
- 2010년 현재 한국의 25-29세 여성 고용률은 66.2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, 같은 연령대의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.
- 반면 30-3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2.9%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45-49세에는 64.2%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나타남.
- OECD 회원국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한국과 유사하게 25-29세까지는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30-34세 OECD 회원국 여성은 이전 연령대에 비해 고용률이 소폭 감소하지만 한국과 같이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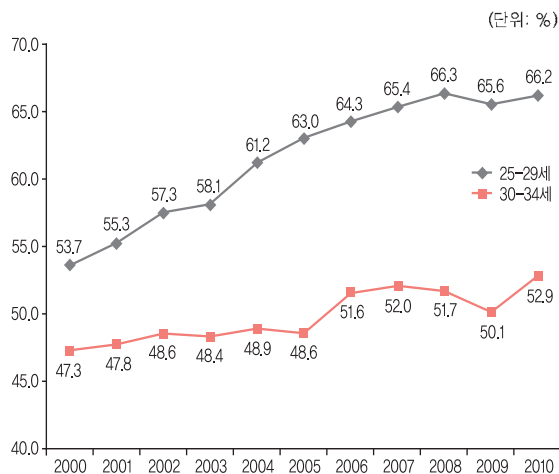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 Stat(<http://stats.oecd.org>)

[그림 1] 2010년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

한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, 지난 10년간 5.6%p 상승

- 한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은 2000년 47.3%에서 2010년 52.9%로 지난 10년간 5.6%p 상승 하였음.
- 한편, 25-29세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3.7%에서 2010년 66.2%로 지난 10년간 12.5%p 상승하였는데 이는 30-34세 고용률 상승치의 두 배 이상임.
- 25-29세 여성 고용률과 30-34세 여성 고용률의 격차는 2000년 6.4%p에서 2010년 13.3%p로 2000년 격차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벌어짐. 이는 25-29세 여성 고용률 상승폭이 30-34세 여성 고용률 상승폭 보다 크기 때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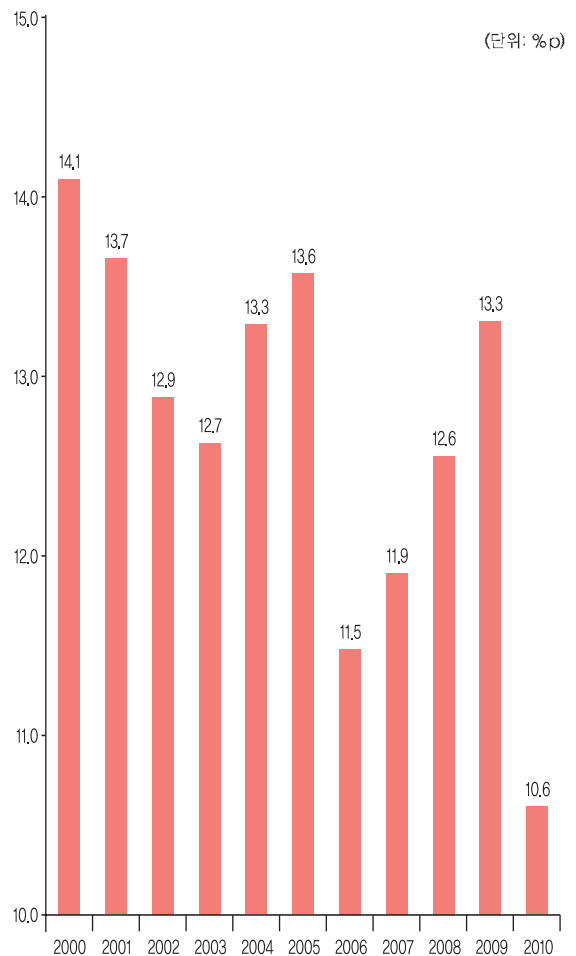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 Stat(<http://stats.oecd.org>)

[그림 2] 25-29세, 30-34세 여성의 연도별 고용률

한국과 OECD 회원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 평균의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

- 한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과 OECD 회원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 평균과의 격차는 2000년 14.1%p에서 2010년 10.6%p로 감소함.
- 한국과 OECD 회원국 30-34세 여성 고용률 평균의 격차는 2000년 14.1%p에서 2003년 12.7%p로 감소 하였으나 2005년 13.6%p로 상승하였으며 2006년 11.5%p로 감소 후 2009년까지 꾸준히 상승흐름을 보이다 2010년 10.6%p로 감소함.
- 2010년 현재 한국과 OECD 회원국 30-34세 여성 고용률 평균의 격차 10.6%p는 2000년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.



주. 고용률 격차 = (OECD 회원국 30-34세 여성 고용률 평균) - (한국 30-34세 여성 고용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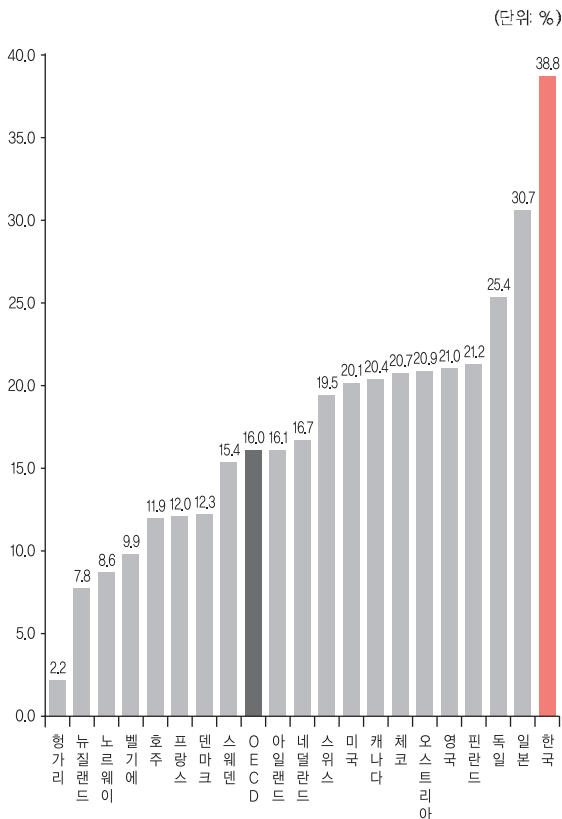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한국과 OECD 회원국 30-34세 여성의 연도별 고용률 격차

이슈 #2

한국의 성별 임금격차,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

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.8%로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넘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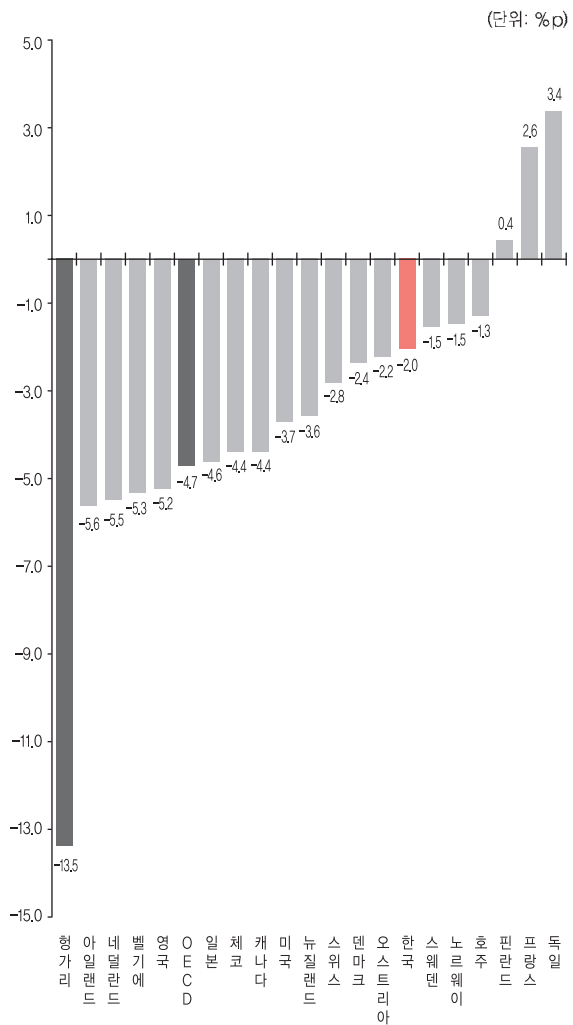
-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.8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남.
- OECD 회원국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6.0%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격차가 있음.
- 성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일본 30.7%, 독일 25.4%, 핀란드 21.2% 등으로 나타났음.
-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헝가리 2.2%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7.8%, 노르웨이 8.6%, 벨기에 9.9% 순으로 낮게 나타남



자료 : OECD Stat(<http://stats.oecd.org>)

[그림 4] 2008년 OECD 주요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

- 헝가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많이(13.5%p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98년 대비 2.0%p 감소하였고,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격차도 4.7%p 감소하였음
- 지난 10년간 성별 임금격차가 벌어진 국가는 핀란드 (0.4%p), 프랑스(2.6%p), 독일(3.4%p)인 것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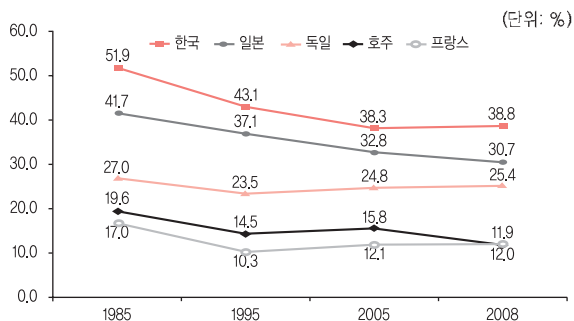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지난 10년간 OECD 주요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 증감(2008-1998)

이슈 #3

한국의 성별 임금격차, 꾸준히 감소하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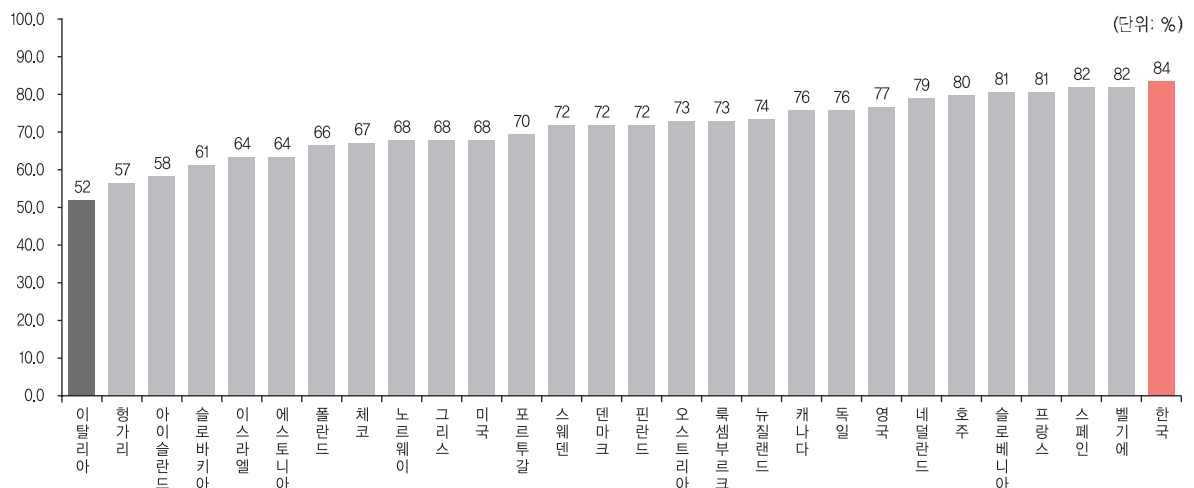
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5년에 비해 13.1%p 감소

-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5년 51.9%에서 2008년 38.8%로 감소함.
- 1985년 대비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 13.1%p, 일본 11.0%p, 호주 7.7%p, 프랑스 5.0%p 등 주요 국가에서 완화되었으며, 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폭이 크게 나타남
- 향후 관련 법·제도 및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.



자료: OECD Earnings database.

[그림 6]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(1985-2008)



주. 각 국가의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한국은 2007년 기준임.

자료: OECD, 2010, Education at a Glance 2010

[그림 7] OECD 국가 35-44세 고학력 여성의 남성 소득 대비 연평균 소득 비율

이슈 #4

한국 35-44세 고학력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, OECD 중 가장 작아

한국의 35-44세 고학력 여성의 연평균 소득은 동일 연령, 동일학력 남성 소득의 8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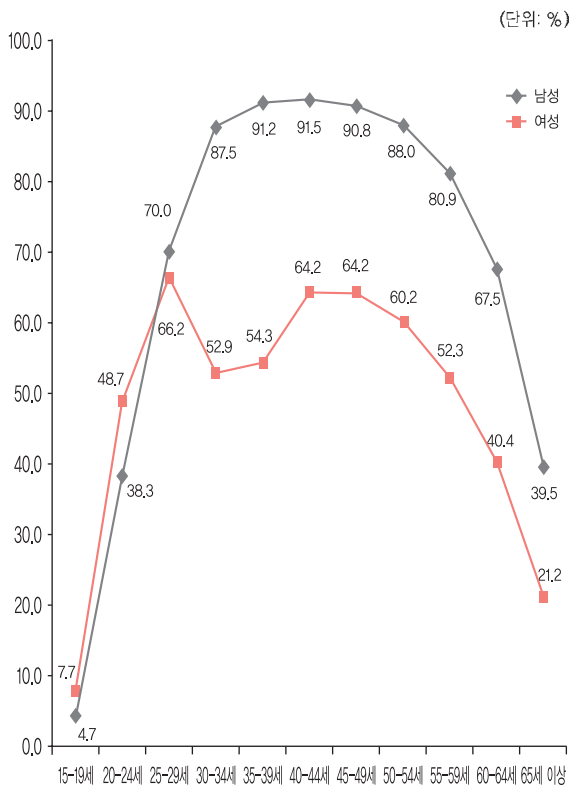
- 2007년 한국의 35-44세 여성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동일 연령대 남성 소득의 59%로 나타남.
-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35-44세 남녀의 연평균 소득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 (92%)로 나타남.
- 반면, 35-44세 한국 여성 가운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연평균 소득은 남성 소득의 84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이슈 #5

30대 여성 고용률 증가가 전체 여성 고용률 증가의 핵심

2010년 한국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같아지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8.1%p 증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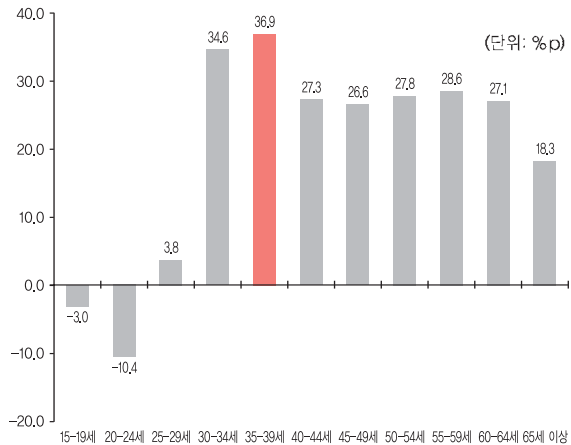
- 2010년 현재 한국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고용률이 80% 이상인 반면, 여성은 30대에 고용률이 감소하였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자료: 통계청 KO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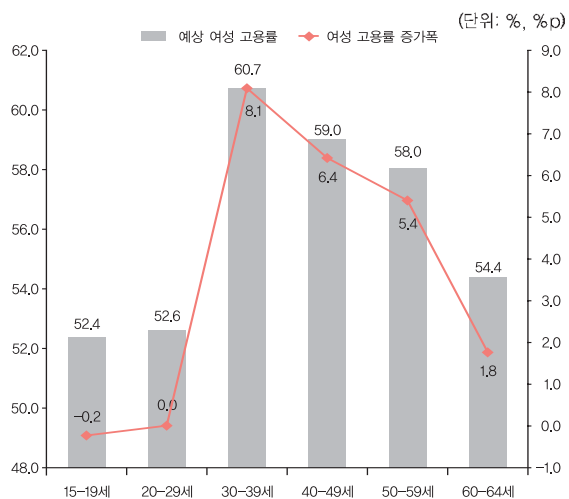
[그림 8] 2010년 한국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

- 2010년 현재 연령대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, 15-19세, 20-24세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에 비해 높으며, 특히 30대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.



[그림 9] 2010년 연령대별 고용률 성별 격차

- 2010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동일해질 경우의 전체 여성 고용률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(Simulation)을 실시함.
- 그 결과, 30-39세 여성의 고용률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전체 여성 고용률이 8.1%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※ 2010년 현재 30-39세 남녀 고용률 여성 53.7%, 남성 89.5%(통계청 KOSIS)
- 이러한 결과는 30대가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에 따른 전체 여성 고용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집단임을 시사함.



[그림 10] 2010년 연령대별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에 따른 전체 여성 고용률 변화 모의실험 결과

2) 2009년 30대 여성 고용률 52.7%가 남성 고용률 89.1%와 같아질 경우, 전체 여성 고용률은 8.4%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슈 #6

2010년 30대 남녀 고용률 격차를 해소하면 OECD 여성 고용률 순위 10계단 상승 가능

☞ 2010년 30-39세 남녀 고용률 격차가 해소되면, 전체 여성 고용률은 52.6%에서 60.7%로 상승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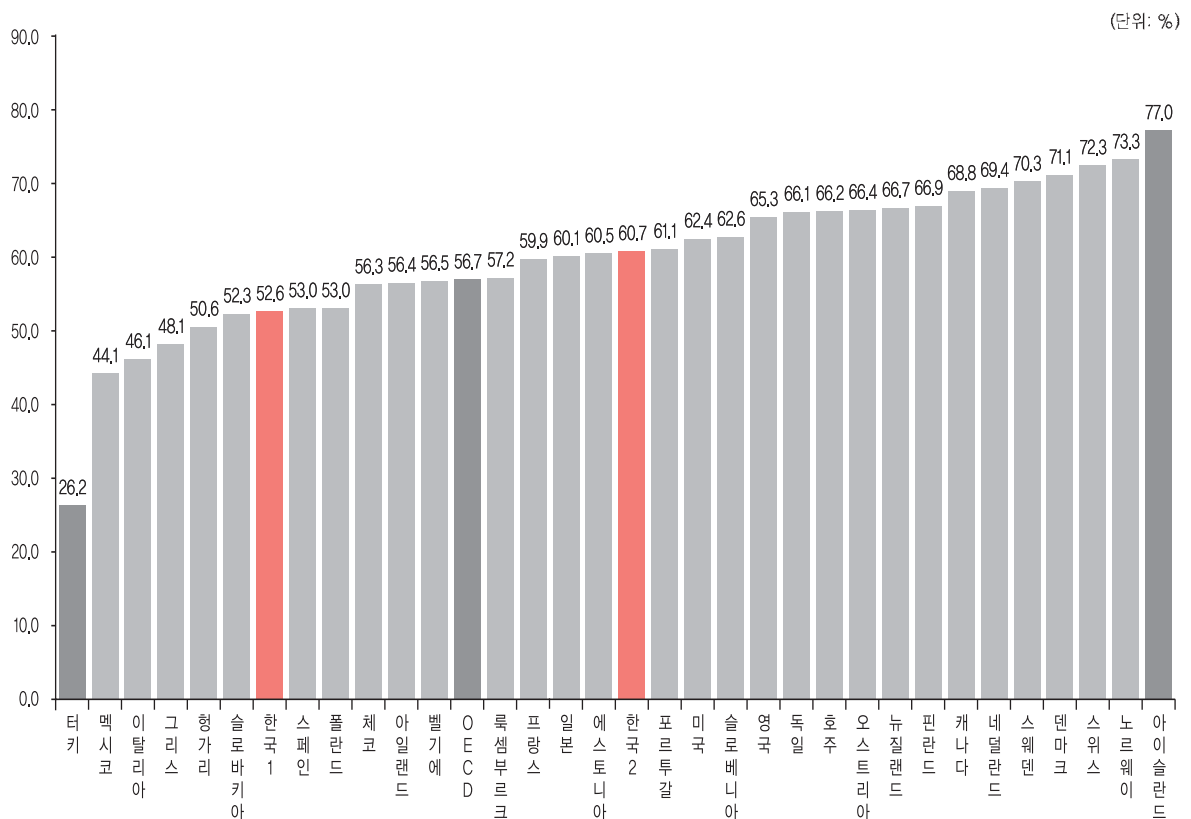
- 2010년 한국의 15-64세 여성 고용률은 52.6%로 OECD 회원국 평균 56.7%보다 낮게 나타남
- 2010년 한국 30-39세 여성의 고용률이 동일 연령대의 남성과 같아지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60.7%로 8.1%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
- 이는 한국의 여성 고용률 OECD 순위가 10계단 상승하는 것임

이슈 #7

한국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,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쳐

☞ 한국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은 64.7%로 OECD 평균보다 19.1%p 낮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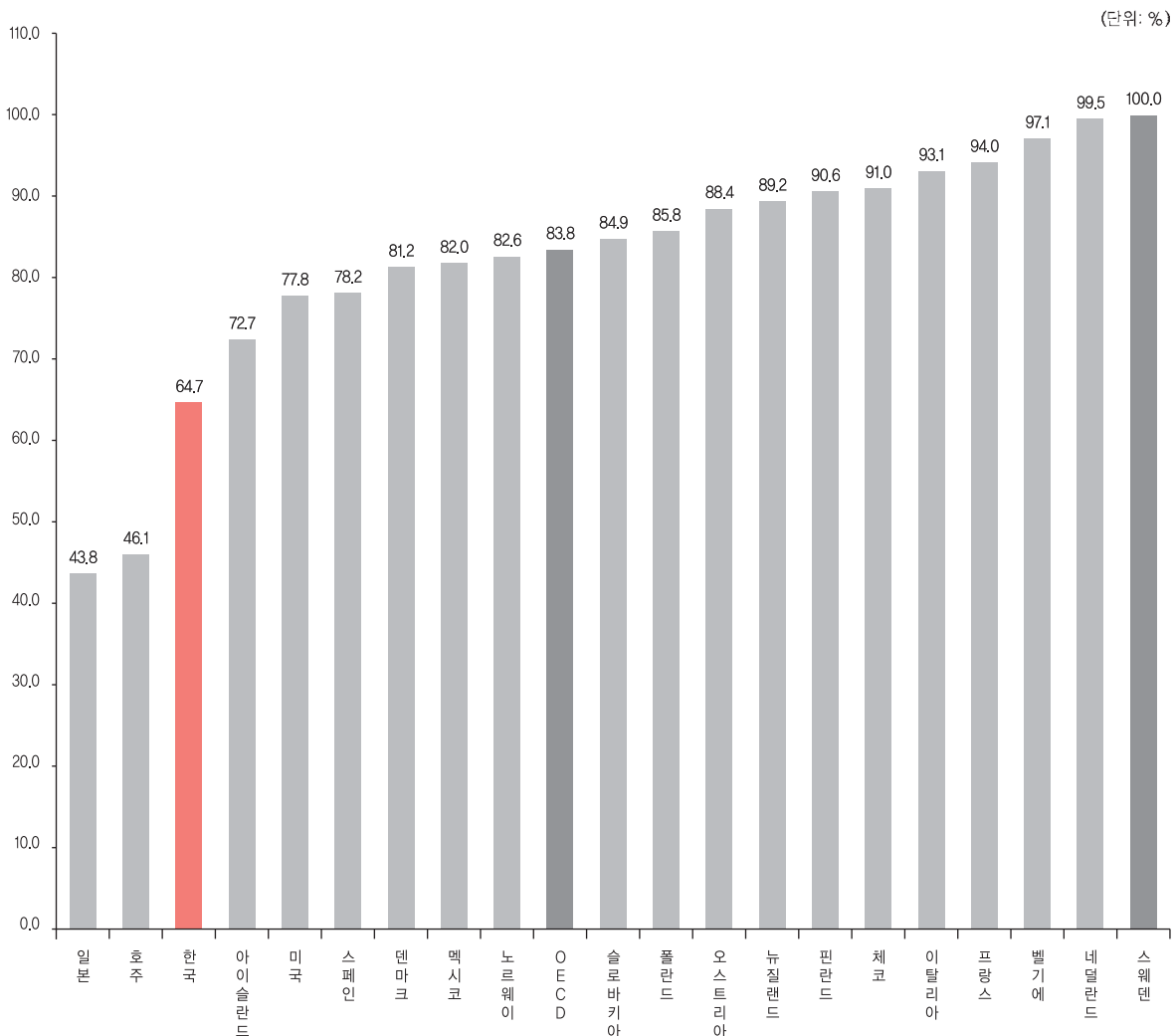
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
※ 유아교육은 3세 이상 취학전 아동 대상의 교육을 의미함.
- 2007년 현재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 정부재원 비율 평균은 83.8%로 나타남
-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(43.8%)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(100.0%)임.



주. 한국1은 2010년 한국의 15-64세 여성 고용률, 한국2는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남성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의 15-64세 여성 고용률을 의미함.

[그림 11] 2010년 30대 여성 고용률 개선에 따른 한국 여성 고용률 순위 변화 추정

- 한국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은 64.7%로 이는 OECD 평균인 83.8%보다 19.1%p 낮음.
-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이 50% 미만인 국가는 일본과 호주이고, 70% 미만인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조사됨.
-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이 90% 이상인 국가는 핀란드, 체코, 이탈리아, 프랑스, 벨기에, 네덜란드, 스웨덴으로 나타남.
- 2009년 현재 OECD 회원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 평균은 63.4%이고 35-39세 여성 고용률 평균은 65.2%임.
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과 30-34세, 35-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, 스웨덴, 벨기에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프랑스 등으로 나타남.
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과 30-34세, 35-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이하인 국가는 일본, 한국, 멕시코 등임.
-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재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

자료: OECD, 2010, Education at a Glance 2010

[그림 12] 2007년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 정부재원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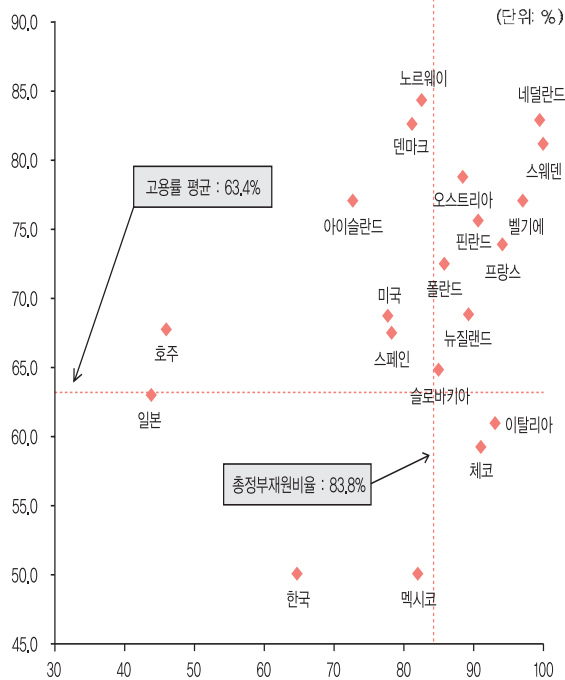
II. 국제적 수준으로의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한 제언

30대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

- 30대 여성은 출산·육아 등으로 인한 일·가정 양립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집단임.
-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30대 여성 고용률이 특히 낮게 나타나고, 동일 연령대 한국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.
- 그에 따라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 고용률과 같아질 경우, 전체 여성 고용률의 개선 효과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클 것으로 추정됨.
- 또한 35-44세 고학력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데, 이것은 이들 여성이 취업을 지속할 경우 남성 못지않은 경제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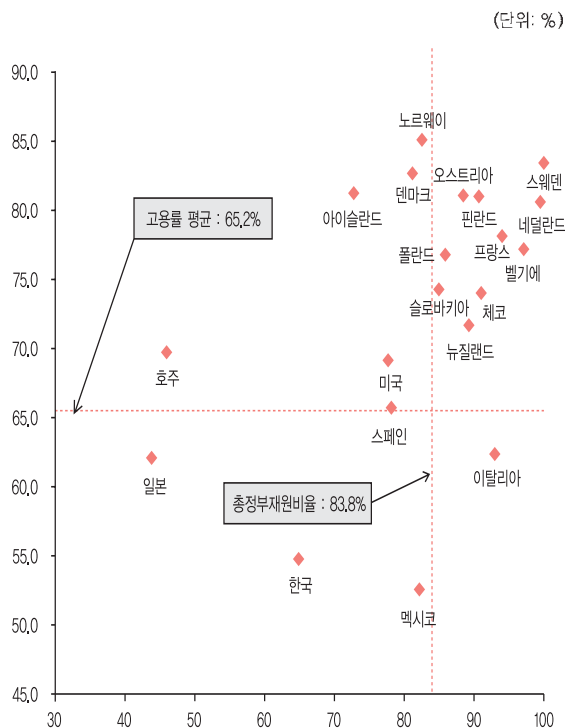
일·가정 양립 가능 환경의 구축

- 30대 여성을 포함한 전체 여성의 일·가정 양립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.
- 예컨대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재정투입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부담 완화와 여성 고용률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.
- 따라서 향후 30대 여성을 포함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남녀의 일·가정 양립이 가능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

자료: OECD, 2010, Education at a Glance 2010과 Employment Outlook 2010을 바탕으로 구성함.

[그림 13] OECD 주요 국가의 30-34세 여성 고용률과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 분포



자료: OECD, 2010, Education at a Glance 2010과 Employment Outlook 2010을 바탕으로 구성함.

[그림 14] OECD 주요 국가의 35-39세 여성 고용률과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 분포